



즉시 배포용: 2019년 10월 24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뉴욕주 할렘 아트 컬렉션(HARLEM ART COLLECTION)을 선보일 새로운 전시인 "할렘 루츠(Harlem Roots)" 발표

몰로 인한 손상을 입은 후 복원된 할렘 예술 컬렉션(Harlem Art Collection) 공개 전시 준비 완료

무료 전시로 11월 15일부터 시작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이번 달 하순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에서 "할렘 루츠(Harlem Roots)"가 열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뉴욕주 할렘 아트 컬렉션(Harlem Art Collection)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이 전시는 지역사회와 예술계에 큰 공헌을 한 아티스트들의 컬렉션에서 엄선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이 예술가들은 주로 뉴욕에서 일하는 흑인과 라틴계 예술가들에 의해 20세기에 창조되었으며 최고의 미국 예술로 여겨지는 "지역사회 예술"라는 것이 주목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전시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의 풍부한 문화적 역사와 예술가 및 예술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그 예술성을 인정하여, 뉴욕주는 할렘 아트 컬렉션(Harlem Art Collection)을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라는 공공 장소에 되돌려 놓게 되어 기쁩니다. 이 전시는 뉴욕을 예술계의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준 예술가들을 기념하며, 예술계에 대한 그들의 놀라운 기여에 바치는 찬사가 될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뉴욕에서 우리의 풍부한 문화와 다양성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전시회는 20세기 흑인과 라틴계 예술가들의 위대한 작품의 중요성을 강조 할 것입니다. '할렘 루츠(Harlem Roots)' 작품은 지역사회의 장점을 기리고 모든 뉴욕 시민들 사이에서 포용성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주민과 방문객들께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에서 열리는 이 전시를 직접 관람할 것을 권합니다."

"할렘 루츠(Harlem Roots)" 전시는 10월 30일 파월 빌딩(Powell Building)의 2층 아트 갤러리(Art Gallery)와 커뮤니티 룸(Community Room)에서 열리는 프리뷰 리셉션에서

공개됩니다. 11월 15일부터 매주 금요일 정오부터 오후 7시까지 전시가 무료로 대중에게 공개됩니다. 건물은 웨스트 125번가 163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할렘 아트 컬렉션(New York State Harlem Art Collection)은 할렘 아트 커뮤니티의 공헌을 기념하는 예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기 위해 197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H. Carl McCall 상원의원이 1975년 할렘 주정부 건물 예술문화 위원회 (Harlem State Office Building Committee on Arts and Culture)를 설립했습니다. 이 위원회에는 주정부와 시정부 지도자를 비롯해 할렘 상업 커뮤니티의 대표가 참여했습니다.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뉴욕주는 예술가 65명의 그림, 조각, 사진, 인쇄물, 혼합 미디어를 포함한 100여 개 이상의 예술 작품을 수집했습니다. 이 예술가들 중 몇몇은 현재 미국 미술사의 중요한 기여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들의 작품은 현대미술박물관(Museum of Modern Art, MoMA), 휘트니 미국 미술 박물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할렘의 스튜디오 뮤지엄(Studio Museum in Harlem), 국립 아프리카인 아메리칸 역사 문화 박물관(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 Culture), 테이트 모던(Tate Modern)을 비롯해 주요 국립, 국제 전시에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할렘 루츠(Harlem Roots)" 전시에서는 컬렉션에서 보유한 Jacob Lawrence, Roy DeCarava, Palmer Hayden, Elizabeth Catlett 등 여러 아티스트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관람객들은 Barkley Hendricks의 *라몬 더 케이스(Lamont on The Case)*와 같은 추가 작품을 향후 전시회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순환 형식으로 컬렉션 작품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컬렉션 히스토리

1977년 할렘 주정부 건물 예술문화 위원회 (Harlem State Office Building Committee on Arts and Culture)가 할렘 아트 컬렉션(Harlem Art Collection)에 선정된 작품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할렘 주정부 건물 셀렉션(Selections from the Harlem State Office Building) 전시가 열렸으며, Jacob Lawrence의 *가장 무도회(Masquerade)* 등 새로 구매한 작품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0 년대에 걸쳐, 컬렉션 작품의 정기 전시가 계속되며, 건물 곳곳에서 특별전이 열렸습니다. 건물의 이름은 1983년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이 컬렉션의 대부분은 지역 현대 예술가와 지역사회의 학생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건물 지하에 보관소로 옮겨졌습니다.

2006년 파이프 파손으로 인한 지하 침수로 할렘 아트 컬렉션(Harlem Art Collection)의 몇몇 작품이 손상되었습니다. 이 컬렉션은 건물의 13층 저장 공간으로 옮겨져 열악한 상태로 유지되며, 5년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컬렉션은 13층 개조 공사가 계획 과정에서 다시 발견되었으며, 작품의 상태를 파악으로 위해 2012년 올버니로 잠시 이전되었습니다. 보존 수리, 청소 및 복원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개별 작품들이 이송되었습니다.

2019년에도 컬렉션의 보존이 계속됨에 따라 파웰 빌딩(Powell Building)으로 돌아와 "할렘 루츠(Harlem Roots)" 및 향후 전시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일반서비스국(Office of General Services, OGS)의 RoAnn Destito 커미셔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주정부 기관에 공공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라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리노베이션을 마친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의 뉴욕주 할렘 아트 갤러리(New York State Harlem Art Gallery)와 커뮤니티 룸(Community Room)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아트 컬렉션을 역사 및 예술 애호가들에게 돌려 줄 훌륭한 공간을 마련해주었습니다. '할렘 루츠(Harlem Roots)'는 내년에 순환 형식으로 진행될 컬렉션 전시 중 첫 번째입니다."

Robert Jackso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작품들이 대중에게 다시 공개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들은 단지 블랙 아트에 기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술가들의 작품은 미국과 그 밖의 모든 예술계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현재 높은 평가를 받는 혁신적인 스타일과 주제는 뉴욕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지만, 그들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이제 그들은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에서 다시 전시되어, 모든 뉴욕 주민이 공공 공간에서 그들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Brian A. Benjamin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렘은 항상 예술과 예술가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지역주민들이 저와 동료들 만나러 방문하는 125번가에 위치한 정부 건물에서 이제 할렘의 가장 창의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게 되어 기쁩니다. 제 사무실의 전 소유자 중 한 명인 Carl McCall은 할렘 주정부 건물 예술문화 위원회 (Harlem State Office Building Committee on Arts and Culture)를 설립하여 이 컬렉션을 완성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이 작품들이 돌아오는 시기에 이 자리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Inez E. Dickes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5년 Carl McCall 전 뉴욕주 상원의원은 할렘 주정부 건물 예술문화 위원회 (Harlem State Office Building Committee on Arts and Culture)을 설립해 위대한 뉴욕주에 오랜 시간 동안 헌신해 온 지역사회와 그

시민들의 의미 깊고 역사적인 중요성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 할렘 주정부 건물(Harlem State office)는 "할렘 루츠(Harlem Roots)" 전시를 환영합니다. 이 환상적인 작품들은 주로 할렘 커뮤니티(Harlem Community)에 기반을 둔 예술가의 표현적인 작품이었습니다. 이 장인들이 기민한 눈을 통해 무엇을 나누고자 했는지 함께 알아보시다."

Al Taylor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과 문화는 할렘의 역사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뉴욕시 할렘의 사람들, 그리고 대중 전체가 다시 한번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에서 이 놀라운 예술 컬렉션을 무료로 보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매우 기쁩니다. 우리가 할렘 르네상스(Harlem Renaissance)의 백주년과 한 세기 이상 이어진 지역사회의 예술적 혁신을 기념하는 가운데, 20여년 만의 귀환은 특히 시기적절합니다."

Robert J. Rodriguez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술은 창조된 곳에서부터 그 시간을 멈추어 세계로 전달합니다. 뉴욕과 국가에 대한 할렘의 문화적, 정치적 중요성은 예술을 통해 놀라운 수준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제 같은 작품이 복원되어 동시대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기쁨을 가져다주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렘 루츠(Harlem Roots)의 공개 전시를 고대하겠습니다."

할렘 더 스튜디오 뮤지엄(Studio Museum in Harlem)의 **Connie H. Choi** 차석 큐레이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주 할렘 아트 컬렉션(New York State Harlem Art Collection)의 작품들이 Adam Clayton Powell, Jr. 주정부 빌딩(Adam Clayton Powell, Jr. State Office Building)으로 돌아와 공개 전시되어 기쁩니다. 컬렉션(Collection)에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시 한번 대중에게 공개된다는 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